

英國의 圖書館과 圖書館學

金世翊



셰퍼드 대학 도서관

더블린을 떠난 비행기는 얼마 후에 런던 상공에 이르렀다. 늘 흐리고 비가 온다는 런던의 하늘은 맑게 개여서 구름 한점 없다.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 보이는 세계 제 2의 도시 런던은 어딘지 모르게 고색창연하다. 군데 군데 보이는 푸른 숲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도시는 볼 품 없는 초라한 도시였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에 있을 때는 비행기가 만원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어떤 때는 승객이라고 나까지 두 사람 밖에 없을 때도 있었으나 구라파에 와 보니 비행기는 언제나 만원이다. 이런 것도 아마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양사람들은 13이란 번호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4번을 피하는 것과 같아서 비행기도 13호석이 마지막까지 비어 있기 때문에 13호석이 언제나 내자리가 되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다 죽어 버리지 13호석에 앉은 사람 만이 죽을 까닭도 없기 때문에 나는 서슴치 않고 13호석에 앉았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몹시 신경질이어서 비행기를 탈 때 마다 13호를 피하노라고 치열한 압투를 한다. 내가 13호석에 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13호석에 앉으면 하계(下界)가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다. 13호석에 태연히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서양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아마 그들은 내가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혹시 금시 죽어 갈 불쌍한 후보자로 보이는 모양이다.

미국 같으면 비행기 문이 열리면 곧 건물 안으로 들어 가게 되는데 런던의 공항은 그렇지 못하다. 타발을 내리면 버스가 서 있다. 이것을 타고 한참 가야 비행장 건물이 있다. 여기서 또 짐을 찾아 가지고 세관에 가게 되는데 30분은 능히 걸린다. 말하자면 비행장의 시설이 미국에 비해서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기분 좋은 것은 세관에서 짐조사 할 때 트렁크를 열어보지도 않고 여권만 보고 통과시킨다. 역시 신사의 나라가 다르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런 기분 좋은 대우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베풀어 지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어떤 여객은 한시간이나 조사를 받는 것도 보았다. 그러면 내에게는 왜 그런 특별대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직업이 도서관인 즉 라이브러리언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직업은 대학교수다. 그러나 나는 구라파에 가서는 이 타이틀을 쓰지 않고 라이브러리언으로 행세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의아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대학교수가 어떻다고 그것을 숨기고 하찮은(?) 사서로 행세 하느냐고, 그러나 나는 나뉠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구라파에서 대학교수라면 그것은 거의 우상화 되어 있다. 명예롭기로는 그보다 더한 직업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구라파에서 대학교수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백발이 성성하고 그 몸가짐 말하는 태도가 모두 어엿하고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제 겨우 40을 갓넘은 내가 구라파에 가서 대학교수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웃긴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아직도 젊고 까무 찻찻하고 출렁거리는 나를 대학교수라고 보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예 대학교수라는 직함을 구라파에서는 배어 버렸다. 사실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위반에 걸리면 교통순경이 「헤이 보이」하고 부를 정도니 가히 알조가 아니냐 말이다. 내가 대학교수라고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언으로 행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은 조심해서 읽어 주기 바란다) 서양에서는 사서에 대한 사회적인 신용도(信用度)가 대단히 높다. 사서라면 사회 교육의 대행자로서 봉사한다는 점에서 거의 성직자(聖職者)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비행장 세관에서 짐조사도 받지 않고 통과된 이유를 짐작할 것이다. 사서라고 하는 자가 믿수를 한다거나 법을 어길 까닭이 없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냐?) 한국의 사서들도 모름지기 이 점을 명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브리티시 카운슬」에 출두해서 영국

에 있는 동안의 스케줄과 UNESCO에서 보내온 경비를 받았다. 몹시 사무적이고 냉랭한 대접을 받았다. 미국사람처럼 적어도 겉으로나마 웃는 얼굴과 친절한 맛이 영국사람들에게는 없어 보인다. 후에 들으니 정말 인정은 영국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 나는 영국을 떠날 때까지 그런 정말 인정을 느낄 수 없었다. 영국에서는 한달동안 런던대학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이 계획의 거의 전부였다. 이 세미나는 영국 도서관협회의 원조로서 런던대학 도서관학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참가자는 영국인에 있는 도서관학과 교수들의 연수를 위한 세미나다. 나는 여기서 저명한 영국의 도서관학 학자들과 사서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세미나나 워크샵으로는 영국에서는 최고 수준이기는 하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의 팍찬스 스케줄을 견디어 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이 세미나의 주된 목적은 도서관학교 교수들에게 정보검색에 관한 고도의 기술과 이념을 주어서 영국의 도서관학이 모색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강사들은 도서관학자들 뿐만 아니라 저명한 통계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계산기의 전문가 Computer의 기술자 등 다채로웠고 또 그들은 모두가 영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에서 독일에서 특별히 초청된 강사들도 여러분 있었다. 대체로 20세기 후반부터 도서관 업무에 기계적 수단을 이용되어 왔지만 그것은 주로 도서관 내외의 Communication에 관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자료 정리와 자료 검색에 대한 기계화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Punched card 혹은 Keybord card 응용, Rapid Selector의 이용은 모두 목록카드에 대한 기계화의 문제들이다. Sheffield University의 Post-graduate Library School에서는 그 입학자격을 과학계 학부 졸업자로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방면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한달동안 계속된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가 연일 강의 되고 토론되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것들은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계화문제는 미국에서 벌써 장안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도서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 초점을 이루고 있었다. 미국식 방식을 그대로 받아 올 것이 아니라 영국의 현실과 미래의 전망에 근거를 두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도서관활동은 어떤면에서는 미국 보다 앞선 것도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발전상황이나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 태세 같은 것은 분명히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학에 있어서는 영국사람들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의 도서관학은 약간(스라이트리) 우리보다 앞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10

년의 간격은 있어 보인다. 나중에 알게 된 독일이나 불란서 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으나 미국을 따를 수는 없다. 런던대학 도서관학과(School of Librarianship and Archives, University of London)는 1919년에 창설되었으며 미국의 카네기 재단의 재정적인 원조에 의하여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이미 학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1년간으로 그 수업연한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London 대학을 비롯하여 Sheffield 대학, Belfast 대학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혹은 대학원 과정(Sheffield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있고 그 외에 전문학교 과정에서 1년간의 코오스가 마련되어 있다.

유명한 North Western Polytechnic나 Manchester College of Technology에 부설된 도서관학과는 10여개의 이 수준의 도서관학과 중에서 비교적 이름 있는 도서관학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의 대학과정이나 10여개의 전문학교에 부설된 도서관학과도 결국 L.A.(영국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서자격고시의 준비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1898년 이래 영국도서관협회가 국가적권위(Royal charter)를 가지고 시행하는 어렵고 권위있는 시험이다. 여러 단계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ALA의 칭호(Associate of the Library Association)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단계 높은 시험의 난관을 돌파하면 FLA(Fellow of the Library Association)의 칭호를 얻게 되어 도서관인으로서의 최고의 자격과 지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대단하여 큰 명예를 지니게 된다.

영국에서 만나는 도서관장이나 도서관학 교수들의 명함에는 FLA의 타이틀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때문에 붙어 있는 문패에도 이 타이틀이 달려 있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 도서관이나 사서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도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많다. 즉 도서관협회가 이렇게 권한이 비대해서 전문교육기관의 상위에 위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교육중시파(學校教育重視派)와 실무경험중시파의 대립이다. 협회의 자격시험제도는 후자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고 각 대학 도서관학교는 전자의 입장에 서고 있다.

이 두개의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현재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차차로 협회의 주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내에 있는 도서관 학교의 내용이 점차로 향상되어서 그 나름의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 시험이 이처럼 약간 완화해가는 경향은 있지만 전통을 존중하는 영국사람의 국민성에 비추어 A.L.A.나 F.L

A.의 제도가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획에 영국도서관협회에 대하여 그 윤곽을 알아 보기로 하자. 미국도서관협회보다 그 설립이 1년 늦은 1877년에 영국도서관협회는 결성되었다. 그 영어 명칭은 the Library Association이다. 현재 약 15,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8개의 부회(部會)중 각자가 두개의 부회의 회원이 된다. 각 부회의의 대표자가 협회의 이사가 된다. 그리고 각 지부별로 11개의 협회지부가 있는데 이 지부장이 또한 협회의 이사가 된다. 이 사회는 연 4회의 회의를 가지며 이사회 밑에 있는 9개의 위원회가 실제 사무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ALA에 못지 않은 세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국 LA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문적 자격 부여와 현직 사서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ALA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서관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비해서 LA는 영국에만 그 세력이 국한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도서관사업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국력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렵지만 LA에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이 몇개 있다. 월간으로 나오는 기관지는 Library나 Association Record, 계간으로는 Library Science Abstracts 그외에 British Humanities Index, British Technology Index와 사서자격획득을 위한 수험 참고서 Students' Handbook 그리고 여러개의 단행본이 있다.

런던대학 도서관학과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미나의 여가와 일요일을 이용하여 그 유명한 대영박물관에 자주 출입했다. 대영박물관은 바로 런던대학 옆에 있다. 이 대영박물관은 영국사람들이 인도 전체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할 만큼 거대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 영국사람들의 커다란 자랑이며 그 찬란한 영국의 역사 속에서 등불처럼 빛나는 존재이기도 하다. 나도 영국에 온 보람을 진실로 느낀 것은 이 대영박물관 도서관에서였다. 실물을 보기를 원했던 그 유명한 금강나나바다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과 「로켓타 스톤」 그리고 많은 파피러스문서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자세히 볼려면 여러 달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피하겠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나라 사서들이 꼭 한번 찾아가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개안(開眼)할 것이다. 이 도서관의 원명은 the British Museum Library, London이며 보통 대영박물관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1753년 영국정부는 저명한 장서가인 Sir Hans Sloane, 1660—1753의 문고를 구

입하여 이미 정부소유로 되어 있던 Sir Robert Cotton, 1571—1631 문고와 Robert Harley 문고와 합하여 대영박물관 도서관을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설립했다. 그 후 왕실문고(King's Library)도 여기에 합치게 되었고 1759년 1월에 개관했다. 이 도서관운영을 위한 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캔터버리대주교와 상원의장 하원의장 세명이 중요위원이 되고 그 밑에 국무대신 저명한 학자와 전기한 Sloane, Cotton, Harley 가에서 대표 2명씩 나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영국이 이 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쉬이 알 수 있다.

대영박물관 도서관은 일반 다른 도서관과 다른 특색이 있다. 그 하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관외대출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제본하기 위해서 혹은 그의 어떤 이 유로던지 도서관 밖에 나올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에 들어간 자료는 영원히 이 도서관안에 있어야 한다. 제본소도 관내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일체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은 근대적 도서관의 이미지와는 판이한 중세기적인 잔재라 아니 할 수 없지만 그 반면에 자료의 보존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연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영국사람의 도서관에 대한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사람들이 종전 곳전 전통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 국민성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큰 예로는 영국도서관계가 세계에 자랑하는 도서관 상호협조와 상호대차의 차질이다. 대영박물관 도서관의 이런 전통과 규칙때문에 도서관 상호대차제도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ational Central Library는 대영박물관 도서관과 협약을 맺고 대영박물관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자료를 마음대로 복사해서(실물은 아니다)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 상호대차에 의한 서어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일일이 복사하기도 어렵고 또 복사할 수 없는 자료도 허다하여 이 문제는 두고 두고 영국도서관계의 암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다른 도서관과 판이한 점은 도서관 이용자의 자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즉 만 21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자료서 특정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책임 있는 지위를 가진 인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된다. 여기서 책임있는 지위를 가진 인사의 추천이란 말에 대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추천한다거나 추천장을 써 주지 않는데 특히 영국사람의 경우는 이 점이 심하다. 우리처럼 안면과 인정에 끌려서 함부로 추천장을 써 주지만 그점 영국사람

들은 냉정하기 이룰때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추천장은 가치와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근대 도서관의 근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Ranganathan의 5대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Books are for all 이라야 하는데 이것도 전근대적인 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의 나라의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도 그렇다. 예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자면 중고등학교 학생은 출입못하게 되어 있는줄 알고 있다. 하루 빨리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축이 이루어져서 이런 요소가 일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나라 도서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한가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다. 다아는 바와 같이 몇해전에 남산시립도서관 그리고 얼마전에는 종로시립도서관이 사적공원에 새로 건립되어 개관했다. 이 두개의 도서관은 적어도 외형에 있어서는 근대적이고 세계 어느 도시의 도서관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또한 최근의 뉴우스에 의하면 그런 형태의 시립도서관이 9개나 서울시에 건설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도서관사에서 김현옥 시장은 높이 평가되고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도서관이 많이 세워진다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운영의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적어도 과거와 같은 인사행정으로서의 그야말로 가시적(可視的) 근대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인이 관장이 되어서 도서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는 도협(道協)의 분발과 노력을 기대한다. 또 한가지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많은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체제와 자료 상호대차 그에 앞선 유니온 카탈로그, central catalog, central processing 등의 문제는 아직 전연 고려되어 있지 않은 줄로 알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하여는 김현옥 시장이라 할지라도 알고 있을 까닭이 없다. 도서관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줄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영국의 공공도서관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해야 하겠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적당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 제도는 현대 도서관 철학이 도탈할 수 있는 최고의 형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여러번 말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 관한 한 미국도 영국을 따를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내의 어느 산간벽지에 살고 있어도 수많은 영국도서관의 어느 것이건 또 그곳에 있는 어느 책이건 24시간 내에 볼 수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도서관이 다만 책이나 그외의 도서관 자료로서만 시민에게 봉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서관 봉사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시민들은 그들의 도서관을 사랑방 드나 들듯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세월이나 이렇게 될 것인지 그저 부럽기만 하다.

끝으로 내가 공부한 런던대학 도서관을 비롯한 영국의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영국에는 다른 구라과 여러 나라와 달라서 19세기초까지도 대학이라면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뿐이었다. 그러나 이 두개의 대학은 귀족적이고 영국 국교를 강요하는 일종의 봉건주의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시민층의 반발을 받게 되었다. 런던대학은 바로 이 시민층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는 여러개의 전문학교가 있다. 영어로 이것을 University College 라고 부르며 이런 것은 옥스포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 같이 학위는 줄 수 없다. 런던 대학은 여러개의 이런 University College 가 합쳐서 1836년에 창설되었고 이 대학은 서민적이고 종교에 대한 어떤 제한 같은 것은 없다. 옥스포드 대학도서관에 가 보면 250 만권의 장서가 있지만 그 도서관 분위기가 운영방법이 고루하기 짝이 없는데 비하여 런던대학 도서관은 미국의 냄새가 나분이 나는 근대화된 도서관이다. 100 만권의 장서와 훈련된 사서가 많이 있어서 대학 도서관으로서는 손색 없는 것이었다.

한편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도 약 200 만권의 장서가 있지만 도서관의 분위기는 옥스포드와 같아서 우리로서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군소 대학도서관이 훨씬 볼품이 있었다. Leeds 대학도서관이나 Sheffield 대학도서관은 그 규모나 모양에 있어서 미국의 일류 대학 도서관에 비해 손색이 전연 없었다.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영국에서도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들은 모두 아메리카나이즈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영국의 도서관은 전통적인 것과 미국식 도서관이 공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정치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영향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나의 체험한바에 따라 지난 여러 달동안도 월월보에 부질없는 나의 글을 기행문 형식으로 연재해 왔다. 이 보잘것 없는 글을 읽고 나에게 직접 편지로 격려해 주신 분도 많았고 계속해서 연재해 달라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연재는 그만 쓰겠다. 아직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독일, 불란서, 이태리, 중국, 인도, 일본 등 많은 지역이 남아 있지만 그만 두겠다. 그동안 나의 보잘것 없는 기행문을 읽어준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붓을 놓는다.